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이다.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다. 욕심은 손익을 판단하고, 양심은 선악을 판단한다. 욕심은 언제나 진실에 겹쳐한다. 양심은 법률적 용어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사람들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탱하는 내면의 외침, 이것은 현재의 삶 뿐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작동한다. 양심은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어 사회의 풍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전주화약이후 동학농민군이 고향으로 흩어질 상태에서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군은 1894년 7월 23일 불법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왕을 볼모로 잡았다. 그 직후에 일본군은 풍도해전과 성환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나라와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9월에는 평양전투와 황해 해전에서 승리하고, 10월 24일 압록강을 넘어 청군을 추격하였다. 바로 그때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하였는데, 일본 대본영은 참모차

양심과 사죄

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의 명의로 농민군을 ‘모조리 살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조선에 파견했다. 용산에 도착한 이들은 조선 관군을 휘하에 두고 11월 12일부터 3개 부대로 나누어 대구, 청주, 전주, 평양을 향해 남진했고, 이 중 한 개 중대가 11월 25일 공주 우금지에서 농민군과 부딪혔다. 공주와 연산에서 3만 명의 농민군이 처절한 패배를 당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요동반도의 끝 뤼순에서도 정의 병사와 백성들이 무차별 살육을 당했다. 이른바 뤼순대학살이다.

일본군 제19대대는 1895년 1월 5일 나주에 입성하여 토벌사령부를 차렸다. 나주목사 민중렬은 관아를 뺏기고 객사 옆으로 몰려났다. 일본군은 서남해안으로 내몰린 동학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다시 3개 방면으로 나누어 진격했고, 닷새 후에 장흥 석대들에서 수많은 농민군을 학살했다. 이 부대의 병사였던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은 이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다음은 1월 31일의 상황이다.

“해남(海南)에 체재하다. 이날 동도(東徒) 가운데 남아 있던 자 7명을 잡아와서 그들을 성 밖 밭 가운데 일렬로 나란히 세우고 총에 착검한 후 모리타(森田近通) 1등 군조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돌격하여 찔러 죽였다. 옆에서 구경하던 조선 사람들과 통위령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몹시 경악하였다.”

이들은 2월 4일 나주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맞이한 것은 성내에 첩첩이 쌓인 농민군의 시신들이었다. “남문(南門)에서 약 400미터(4丁) 남짓 떨어진 곳에 작은 산이 있다. 시체가 실로 산을 이루었다. 이것은 장흥

부 전투 후에 수색이 삼엄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게 된 동학농민군이 조선의 민병이나 우리 병사에게 포획되어, 고문당하고 중죄인으로 살해되었는데, 매일 12명 이상 103명에까지 이르렀다. 이곳에 버려진 시체가 680명에 달했다.”

일본군들은 임무를 마치고 2월 8일 나주를 떠났다. 스산한 겨울바람이라도 이들의 뺨을 때렸을 것이다.

2008년 그 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남긴 문서들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하여 나주에 서남해안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였던 일본 정토군 본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쿠스노키의 ‘중군일지’를 통해 나주의 전라 우영 일대에서 수많은 동학지도자들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0여 년전의 일본과 조선 관계사의 진실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친 ‘일본의 양심’,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와 이노우에 교수는 일본군의 학살에 대하여 통절한 사죄의 마음으로 위령비를 세울 것을 제안했고, 나주시와 한국의 연구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오는 10월 나주에 사죄비를 세우기로 하였다. 일본군 만행의 현장이자 수성군과 농민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장소에 건립될 이 비가 미래의 평화와 상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국내의 정세, 새로운 군사동맹이나 국가적 해양 오염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기국 약속이나 과거사에 관한 사죄나 용서 모두가 굳건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면서.

청춘 특특



김세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년

미디어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다. 미디어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해주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 왔던 미디어의 긍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존재한다.

과거뿐만 아니라 여전히 SNS를 보면, 연예인들이 사진만 올라도 사람들은 보통 관심의 시선을 뒤편어 과도한 관심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뉴스에서도 사실 파악이 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중립의 입장을 가지기보다는 소문을 만들어 가며, 피해를 만든다.

미디어의 피해를 본 예시를 들자면 2017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대왕 카스테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왕 카스테라에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미디어의 마녀사냥

내용을 방송했다.

이 방송으로 인해 대왕 카스테라를 팔던 가게들은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다가 대부분 폐업하게 됐다. 과연 실제로 대왕 카스테라를 팔던 가게들은 모두 우유와 계란보다 식용유를 더 많이 썼을까. 사실상 모든 가게가 그렇다고 알려진 정보는 거짓이다. 몇몇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수의 현상에 대해 마치 모든 가게가 그렇 것이라는 기정사실화를 시키면서 점주들의 피해는 계속됐다.

그렇다면 현재는 달라졌을까. 현재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이번 달 10일에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은 나타났다. 지난해 태풍 ‘한눈노’ 때 발생한 부산 피해 사진을 조작해 마치 이번엔 일어난 것 같이 날짜를 속여 미디어에 노출했다. 이러한 가짜 사진은 한 방송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으며, 태풍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끼리도 태풍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게 했다. 문제는 가짜 사진들로 인한 해당 지역 상인들의 피해다. 사진을 접한 손님들은 예약 취소를 하는 등 영업에 손실을 끼쳤다.

내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때 ‘가짜뉴스의 심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돈과 관심을 위해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과거에도 계속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언제, 어

디서나 사진, 동영상은 공유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더라” 라는 말들은 순식간에 사실이 되며,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복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를 접하는 개인은 자신이 접하는 미디어의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중립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미디어를 생성하는 개인은 자신이 만드는 미디어 정보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마녀사냥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언론중재법이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사회의 큰 역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가짜 정보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마녀사냥도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미디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기고



노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산불·폭우·가뭄·폭염·폭설·전염병 등 재해는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된 이상기후가 원인이라고 한다. 올해 초 광주 전남에서 겪은 50년 만의 역대급 가뭄,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호주·캐나다·미국 등의 대규모 산불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에서 야기됐다고 한다.

올해 3월, 전 세계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1850-1900년 대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지구 온도는 1.09도 상승했다. 2023년 6월 열시스템사이언티스티어 저널에 실린 IPCC 논문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구 온도는 0.06도 높아졌다. 산업화 이전 시대에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 데 약 1천 년이 걸렸다고 하니 현재 기후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 대재앙이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IPCC는 2도 높아지면 그린란드 전체가 녹아 부산, 도쿄 등이 바다에 잠기고 5도 상승 때는 가뭄, 홍수로 인해 주거 가능지역이 사라지고, 6도 상승 시 생물의 95%가 멸종위기를 맞는다고 예고했다. 2021년 제6차 IPCC 보고서는 정부나 기업이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취하는 단기적 조치는 인간사회나 생태계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기업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는 2.6-2.7도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며 각국 정부에 탄소중립 기준 목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절박한 현실 앞에 개인, 기업, 기관, 교육청, 지자체, 국가가 따로 일 수 없다. 함께 가야 멀리 가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행동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저탄소 식생활 공익 캠페인 ‘그린 푸드 데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저탄소·친환경 농축산물과 푸드 마일리지 등을 줄인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식재료 폐기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사용하며, 먹을 만큼 만들고 남김 없이 먹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현재 ‘그린 푸드 데이’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

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관·협회·단체·해외 업체 등 국내외 30개국에서 530여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둘째는 가치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착한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그린 슈머 활동에 참여하고 물건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실천이다. 불필요한 메일함을 비우는 작은 습관으로 스팸, 광고 등 필요 없는 전자우편을 삭제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이메일 1개는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삭제되지 않는 메일을 각 서버에 저장하는 데 이 서버 운영을 위해 전력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쓸모없는 메일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메일 계정은 탈퇴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가정·기업·기관·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만 사용해도 어린 세대는 기성세대들 지혜롭고 현명했다고 평가해 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자초한 인재다. 우리가 직면한 인류 대재앙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숙명 같은 과제다. 여기에 너와 나, 우리, 세계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금의 기후위기 전조들은 우리에게 인류의 종말을 막아달라는 절규일지도 모른다.

社說

막다른 자영업자...적극적인 민생 대책 필요

경기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까지 겹쳐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40대 가장 임모씨는 버티다 못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2015년 학원 운영을 시작해 코로나19에도 근근히 버텼었는데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빌린 30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임씨처럼 자금난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광주·전남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증사 고율은 광주신보가 4.22%, 전남신보가 4.3%로 1년 전에 비해 2.63%와 2.82% 포인트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 돈을 대신 갚은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광주신보와 전남신보 모두 2.92%로 2% 포인트 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 보증사도 금액도 광주신보 258억 원, 전남신보 267억 원으로 이미 지난 한해 사고 금액 247억

원과 248억 원을 넘어섰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파가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데 있다. 금융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는데 다음달 말부터 해택이 사라진다. 벌써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 9월 위기설이 나도는 이유다. 광주 원도심 상권을 대표하는 충장로는 공실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질만 지역경제의 말초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힌 숨통을 트워줄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민생 대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다.

광주시, 공공부문 노사 갈등 반면교사 삼아야

광주시와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공공부문 노조의 농성 파업이 일단락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옛그제 시의회의 중재로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과 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등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4자 합의를 이뤘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이들은 시 산하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7개월 여 농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이 기간제 근무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무자로 보는 기간제 대체 교사 공모에 들어간 게 발단이 됐다. 4자 합의안에는 보육 대체 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 대체 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주시의 직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최근 50여

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다음 달까지 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광주시와 사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광주시의 병원 직영, 단체 협약 승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전면 파업 철회는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장기 노사 갈등으로 공공 서비스 공백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치렀다. 제2요양병원 노조 파업으로 입원 환자 180명 가운데 179명이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큰 불편을 겪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린이 돌봄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를 비롯한 노사는 협약을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 등의 노사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공공부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90년대 초반, 미군 해병대 내의 가혹 행위로 인한 병사의 죽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다룬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이란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가 진실을 밝히려는 군 변호사로, 과묵한 성격과 배우로 유명한 잭 니콜슨이 이를 옹호하려는 부대장으로 출연해 불꽃 튀는 열연을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폐쇄적 군대 내에서의 법정 공방을 둘러싼 탄탄한 대본이 어우러지면서 영화의 완성도도

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상부 지휘관들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빠고 대대장 두 명만 최근 경찰에 이첩했다. ‘채 상병의 죽음에 역할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단장을 포함,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 정신

영화의 메시지도 목격했다. 부대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에 대해 부대장이 선임병들에게 열차려(코드 레드)를 줄 것을 명령,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담았지만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줬다. 특히 군인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만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공감과 함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군인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단순하다. 사병의 안전을 무시한 지휘관들의 안이한 인식에서 기인한 못한 병사에 대해 부대장이 선임병들에게 열차려(코드 레드)를 줄 것을 명령, 사망에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군은 장병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군인 정신의 실종으로 이어져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어두운 진실은 기필코 밝혀져야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 황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